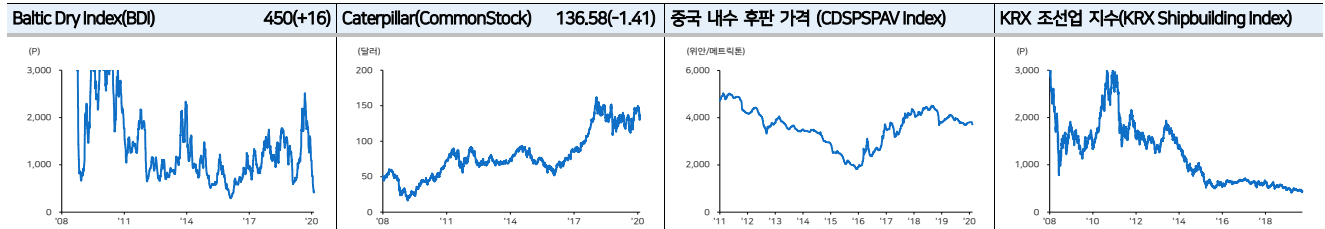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4,796.4	19.7	294,500	-1.0	-7.4	-8.7	-12.9	13.3	9.5	0.6	0.6	4.6	6.1
한국조선해양	8,174.3	17.8	115,500	0.4	-9.8	-0.4	-8.7	38.1	31.4	0.7	0.7	1.9	2.1
삼성중공업	4,195.8	18.4	6,660	0.3	-10.1	-3.1	-8.4	-4.0	335.2	0.7	0.7	-16.0	0.3
대우조선해양	2,690.9	12.3	25,100	-0.6	-5.6	-8.2	-9.9	24.2	30.3	0.7	0.7	2.5	1.7
현대미포조선	1,633.6	12.5	40,900	-1.0	-14.6	-3.7	-11.2	19.0	17.3	0.7	0.7	3.7	4.0
한진중공업	396.4	20.8	4,760	-1.3	-0.7	-2.8	-4.5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2,958.4	19.4	30,350	-0.7	-7.9	-19.3	-10.9	13.5	16.6	2.5	2.3	19.2	1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80.9	22.4	32,600	-1.5	-6.3	-17.3	-7.0	13.5	13.0	0.7	0.6	4.9	5.1
LIG넥스원	606.1	4.6	27,550	-1.1	-6.9	-18.6	-12.8	N/A	N/A	N/A	N/A	N/A	N/A
현대로템	1,313.3	3.9	15,450	-2.2	-4.9	-5.8	-1.0	-7.1	260.1	1.5	1.5	-19.2	0.4
현대엘리베이터	1,640.1	22.3	60,300	-2.1	-14.7	-21.3	-11.7	33.1	21.5	1.8	1.7	5.0	7.7
두산중공업	1,428.2	7.4	5,800	-3.7	2.5	2.5	1.4	-16.2	11.1	0.4	0.4	-3.4	4.7
두산밥캣	3,017.5	26.2	30,100	-0.8	-7.8	-5.7	-12.4	10.0	9.3	0.8	0.7	7.8	8.0
두산인프라코어	1,024.2	14.7	4,920	-1.0	-6.5	-13.2	-11.4	3.8	3.8	0.4	0.4	12.6	10.8
현대건설기계	472.8	10.2	24,000	-1.2	-21.7	-17.0	-19.7	7.0	5.9	0.4	0.4	5.1	6.5
현대일렉트릭	365.9	5.8	10,150	-1.9	-13.6	16.5	-12.1	-2.1	196.2	0.4	0.5	-14.2	-0.6
하이룩코리아	210.3	46.6	15,450	-0.3	-13.0	-9.9	-19.5	N/A	N/A	N/A	N/A	4.5	4.8
성광벤드	257.4	19.9	9,000	-1.1	-13.9	-9.5	-13.0	34.7	21.2	0.6	0.6	2.4	2.9
태광	249.4	15.1	9,410	-2.2	-13.3	-3.5	-7.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84.7	5.2	10,550	-1.9	-3.2	8.7	0.0	17.8	8.0	3.0	2.2	19.7	32.9
한국카본	391.3	12.9	8,900	-0.1	8.7	21.8	13.7	32.3	11.7	1.3	1.2	4.3	10.0
태웅	147.5	4.8	7,370	-1.3	-9.9	-18.2	-17.1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34.3	2.6	4,075	-0.7	-12.1	-9.8	-8.8	-5.5	27.8	0.6	0.6	-11.1	2.2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our shipyards submit final LNG newbuilding offers to Qatargas

이번 주 Qatargas의 LNG선 건조 프로젝트에 4개의 조선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됨. LNG선 80척, 150억달러 규모의 해당 프로젝트에 조선 빅 3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참여했으며 중국의 Hudong-Zhonghua Shipbuilding도 참여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중고 탱커 가격 예상과 달리 상승세

수에즈막스 및 아프리카막스 탱커 구매 욕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중이라고 보도됨. 10년생 수에즈막스 탱커 가격은 최당 3,750만달러(+4% WoW)로 올랐고 5년생 아프리카막스 탱커는 4,250만달러(+3.6% WoW)로 올랐다고 보도됨. 다만 선령이 높은 선박에 비해 선령이 낮은 선박은 현재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철강가격 올라도...철강vs조선업계 '후판 가격 양보 못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선박용 철강재인 후판가격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철강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선업계는 시장 회복이 더디다며 맞서고 있다고 보도됨. 철강업계는 지난해 사실상 후판가격을 동결했다고 보도됨. (데일리인)

US sanctions Rosneft over Venezuela imports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Rosneft가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수출하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됨. 트럼프 정부는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마두로가 여전히 러시아, 쿠바, 중국 은행을 통해 자금력을 유지 중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Germany battles to remain top dog despite dwindling fleet

독일 선주들과 브로커들이 한 목소리로 독일 내 선사들의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됨. 독일은 용선 제공 선주들이 보유 중인 2,354척(998만TEU) 중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여전히 큰 손. 그러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수백 척이 매각되었고 아시아 선주들의 용선 시장 내 위상이 상승하며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탈원전 3년, 두산중공업 대규모 감원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45세 이상 명예퇴직'이라는 초고강도 카드까지 꺼냈으며 명예퇴직자가 1,000명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 직원 6,700명 중 45세 이상 직원은 2,600명(39%)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의 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의 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